



광남일보



복광주세무서, 6년만에 신청사 준공식 북구 금호로 위치...갤러리 개관도 7

'출생아 증가' 화순, 인구정책 빛났다 지난해 255명 출생...전년 대비 20% 증가 8

곡성,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 '박차' 247억원 투입...6개 분야 56개 사업 확정 9

화순전남대병원, 국립대병원 '전국 2위' 미국 시사주간지 선정...비수도권에서 '1위' 13

주간 제7794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음력2월5일)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7월 첫삽

광주시, 행정절차 신속 완료 지구단위계획 등 8개월 단축

공사 준비 거쳐 2027년 완공 정규모 등 5000명 고용 창출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방일산방직 부지내에 들어서는 더현대 광주와 43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한 철거 작업이 한창이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가 토지매매 대금을 최종 납부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오는 7월 착공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갔다.

3월 광주시에 따르면 '더현대 광주'는 지난달 28일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접수한 데 이어 자치구의 건축허가와 시공사 선정 등 공사 준비를 거쳐 오는 7월 착공해 2027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더현대 광주'는 부지면적 3만2364㎡ 연면적 27만3895㎡에 높이 59.19m, 길이 214m, 폭 111m의 지하 6층·지상 8층 규모의 쇼핑, 문화, 여가 시설 등을 갖춘 대형 복합쇼핑몰이다.

'더현대 광주'가 착공하면 공사 기간 약 30개월 동안 하루 평균 건설일자리가 최대 3000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더현대 광주'가 문을 열면 정규직과 협력 직원 등 약 5000명 규모의 직·간접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더현대 광주' 건설과 함께 복합쇼핑몰-지역상권 간 상생방안 논의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상생 논의는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생발전협의회는 복합쇼핑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상권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쇼핑몰 내 로컬매장 임점, 복합쇼핑몰-전통시장 연계, 구매 포인트 지역화해 전환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더현대 광주'가 지역 첫 복합쇼핑몰이자 '도시이음인구 3000만 시대'를 실현할 핵심 인프라인 만큼 '신활력행정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행정절차를 8개월 단축했다.

지난해 2월 지구단위계획 제안 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교통영향평가, 소방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경관·건축 심의, 해체 공사까지 총 11개월이 걸렸다.

이 같은 행정절차를 개별적으로 거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19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8개월 앞당긴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최소 10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이를 4개월 이상 단축시켜 6개월만에 마무리했다.

개별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통

상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더현대 광주'의 경우 신활력행정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수차례 사전협의 회의를 거치고, '더현대 광주'의 적극적인 조건 수용 등으로 3개월만에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이후 진행된 경관 심의와 건축 심의는 각각 2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경관과 건축 심의를 통합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두가지 심의를 2개월 만에 조건부 통과했다.

이밖에도 소방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쇼핑몰부지 해체공사 등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광주시가 담당하는 주요 행정절차는 지난해 말까지 모두 완료됐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광주 복합쇼핑몰은 관계 부서 간 적극적 협업으로 심 없이 달려와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착공 이후에는 '복합쇼핑몰 상생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복합쇼핑몰을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민주 담양군수후보 이재종·최화삼 '결선'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없어...이번 주말께 치러질 듯

4·2 담양군수 재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재종(49)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최화삼(71) 담양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결선으로 가리개 됐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담양군수 후보자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당선거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후보자 5명이 참여한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득표자인 이재종·최화삼 후보(기호순)가 결선 후보자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김용주(68) 전 담양군청 경제과장, 김정오(64) 전 담양군의회 의장, 김진진(69)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고객지원센터장은 하위로 분류돼 탈락했다.

5파전이 치열해지면서 표가 분산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결선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관례와 다른 경선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결선에서는 후보별 가·감산과 탈락



후보 지지층의 향배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앞서 3일간 진행된 이번 경선은 당원 50%·일반국민 50%로 치러졌다.

담양군수 재선거는 전임 이병노 군수가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지난 2월 확정 받아 열리게 됐다.

민주당 외에도 조국혁신당 정철원(62) 담양군의회 의장이 출마한다.

다만 4·2 재보궐 선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다. 오는 12일까지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경우 60일 이내 치러지는 조기 대선과 함께 치르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북, 2036 올림픽 유치 후보지 확정 광주·전남 등 지방 연대 전략 통했다

최종 유치시 광주 양궁·수영...전남 요트·근대 5종 등 예정

광주·전남 등 '지방도시 연대' 전략으로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도전에 나선 전북이, 국내 후보지 선정 투표에서 서울을 꺾는 이변을 연출하며 최종 도전권을 거머쥐었다.

전북도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 호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2025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 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 선정 투표에서 총 61표 중 49표를 얻어 서울(11표)을 꺾었다. 무효표는 1표였다.

이로써 전북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에서 48년 만의 하계 올림픽을 열기 위한 도전에 나서게 됐다.

'국가 균형 발전'을 주장하며 '지방 도시 연대'를 내세웠던 전북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성공 개최 경험과 각종 인프라의 장점을 부각한 서울에 큰 격차를 압승했다.

전북도는 최근 올림픽 유치 도시들의 콘셉트인 '지방 도시 연대'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실현에 초점을 맞춰 표심을 끌었다.

올림픽을 유치하면 육상 경기를 대구 스타디움에서 개최하고, 광주(국제양궁장·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충남 홍성(충남 국제테니스장), 충북 청주(청주대 목격실내체육관), 전남 고흥(남해해돋이해수욕장) 등에서 분산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지하는 인접 도시 연대를 통한 비용 절감 요구에 부합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경제력의 분산으로 균형 발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즉각적인 성명을 통해 전북도와 함께 올림픽 유치 도시 최종 선정에 총력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전북도가 올림픽을 유치하면 국제 규모의 양궁장과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고, 전남도도 여수

광주시민의 행복은 아주 보통의 하루로부터!

평범한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위한 아·보·하 정책

01 전 세대 빈틈없이 할인·환급해 주는 광주G-패스 (광주형 대중 교통비 지원)	06 호출료 무료 062-525-5555 어르신 전용 콜택시	11 청소·정리정돈 등 1인당 20만 원 임신부 가사 돌봄서비스
02 교통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07 실용적인 결혼문화를 위한 시청사 예식공간 개방	11 아동당 연 200시간 간병·종말 돌봄 지원 입원 아동 돌봄서비스
03 걷기 좋은 광주전변 계절꽃 산책로 조성	08 고독사 예방을 위한 이웃지기단 운영	11 맞벌이·다자녀 가정 돌봄 수당 20만 원 손자녀돌봄 지원사업
04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근로 단축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09 산단 근로자 건강 지원 반값 아침 한 끼	11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임산부 직장암 고용유지 지원금
05 재난사고 시 생활 안정을 위한 광주시민안전보험 운영	10 군 복무 시 자동가입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15 직장맘 쿼리미 제공 빛나는 맘편한 패키지 지원